

“18년만에 역사속으로?” 광주 이마트 상무점 폐점 수순

영업부진 이어져...최근 입점업체에 12월18일까지 철수 통보

광주 이마트 중 유일한 ‘임차점포’...“(폐점) 확정 아니고 논의 중”

이마트 광주 상무점이 개장한 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0일 이마트와 입점업체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상무점 입점업체들에게 12월18일까지 철수할 것을 통보하며 폐점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창사 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무점 폐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점은 2001년 9월14일 지하 4층 지

상 5층 규모로 개점했다.

지하 1~4층은 주차장으로 543대를 주차할 수 있다. 1층은 고객센터·가전·화장품·식당가, 2층은 농수축산물·조리·가공·일상용품·키친데코 등을 판매한다.

3층은 패션·스포츠 브랜드·문화·생활·자동차용품·가구, 4층은 문화센터, 5층은 공실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1998년 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동광주점을 시작으로 2001년 상무점, 2004년 광산점, 2006년 광주점, 2007년 봉선점 등 5개 매장을 오픈했다.

상무점은 광주 이마트 중 유일한 ‘임차점포’다. 건물주는 대한지방행정공제다.

예초 2021년 9월까지 20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불가피하게 영업 종료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원치 않게 영업종료 상황이 발생했다. (폐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사에서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입점업체들은 상무점 임대계약

이 끝나는 2021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마다 3월말 이마트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이마트 임대차 계약이 1년10개월 가량 남았고, 이마트와 계약 갱신도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철수 통보를 받으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일부 입점업체들에게 12월분부터 내년 3월까지 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을 뿐 다른 보상 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상무점이 폐점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갑작스레 철수하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상무점 전경.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2분기 적자를 기록하자 최근 고강도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포스코건설, 8500억 규모 ‘광주 풍향 재개발사업’ 수주

최고 34층 28개동 총 3000가구 건립...창사 이래 첫 정비사업 수주 2조원 목전



포스코건설이 총공사비 약 8500억 규모의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은 참여 조합원 958명 중

51%인 501명의 표를 받아 시공사로 뽑혔다.

풍향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8477억원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28개동 총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주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마감재와 가구당 2.5대의 주차공간, 포스코강관 기술을 활용한 인테리어 마감재 ‘포스마블’ 등 특화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라 데팡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글로리 게이트’, 무등산 서석대와 능선을 재해석한 아파트 형태와 배지, 100m 높이의 스카이라이프 등 랜드마크로서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조합원 한분 한분께 정직하고 진심을 담은 설계안을 약속드린 결과, 포스코건설을 믿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믿고 맡겨주신 만큼 풍향구역을 광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대구 중리지구아파트 재건축, 4월 서울 잠원웨지리 리모델링, 10월 서울 성수장미 재건축 사업 등에 이어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1조9833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를 달성했다.

뉴스1

추위 시작...땀·추위 잡는 ‘발열내의’ 경쟁 활발

토종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히트텍 대체제’ 선보여

입동(立冬) 추위가 찾아왔다. 토종 패션 브랜드들은 ‘땀’과 ‘추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발열내의’로 한파 대비에 나섰다.

특히 겨울철 발열내의 시장을 주도했던 유니클로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추중하고 있어 시장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다. 토종 브랜드들이 발열내의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인 탐텐을 비롯해 지오지아·올젠·앤드지(ANDZ) 등 신성통상의 패션 브랜드들이 ‘온에어’로 발열내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미 신성통상은 올 8월 일찍이 자사 주요 브랜드를 통해 500만장의 초기 물량을 내놨다. 하지만 한파가 들이닥치기도 전 35%의 물량이 팔리자 리오더(재생산)에 들어갔다.

이처럼 온에어는 꾸준한 프로모션과 함께 유니클로 히트텍 수요 감소 효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탐텐 전 제품 가운데

온에어는 판매량 11위에 이름에 올리고 있다.

이랜드윌드의 SPA 브랜드인 스파오도 지난 9월 스파오 자체 섬유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열내의 ‘웜테크’를 선보였다. 이는 2009년 선보인 웜히트의 새로운 이름이다.

또한 토종 SPA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너웨어 브랜드 등 다양한 업체에서 겨울철 발열내의 열풍에 동참하고 있어 주도권 쟁탈전이 한층 뜨거워졌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자주’가 대표주자다. 자주는 1년여 간의 기획·개발 기간 끝에 기존 발열내의 대비 면 함유량이 높은 ‘자주온’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애니바디도 누적 판매 200만장을 달성한 웜핏에 판매 데이터·후기를 반영해 얇은 라운드 니트 안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뉴 웜핏’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처럼 발열내의가 매 겨울마다 인기를 끄는 내의로 착용하면



배우 이나영이 착용한 탐텐 ‘온에어’

보온성을 책임질뿐 아니라 얇은 소재로 제작돼 니트 안에 받쳐 입어도 옷 맵시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운 겨울 방한 효과와 땀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발열내의가 인기”라며 “그간 유니클로가 히트텍으로 발열내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지만 일본산 불매 운동 확산으로 토종 브랜드를 대체재로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패션가에서도 이런 니즈에 발맞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서울을 앞서는 2019 동행백전

제 884회차 당첨결과 (2019년 11월 9일 추첨)

4 14 23 28 37 45 + 17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2	1,799,077,282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4	48,623,71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207	1,630,33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8,07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17,654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일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일업일)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